

## ■ 오페라창작산실 17-18 오페라창작활동발굴지원 지원심의회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2018 오페라창작활동발굴지원
- 회의일시
  - (1차) 2017. 7. 7(금) 14:30
  - (2차) 2017. 7. 21(금) 15: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 전체회의실

2017년도 오페라창작활동발굴 지원심의회는 총 29건이 신청되어, 1차 심의를 통해 6건의 2차 심의 대상을 선정했다. 심의는 작곡 3명, 극작 2명, 연출 1명, 평론 1명으로 총 7명의 각 분야 전문가에 의해 진행 되었다. 심의 과정은 제출한 기존 활동 자료로 각 지원자의 예술성을 검증하고 작품창작 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각 지원 건별로 토론을 거쳐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에 따라 결정하였다.

작년에 비해 고무적인 것은 지원 작품 건수가 늘어서 본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하지만 동일 작곡가나 작가가 팀의 조합을 다양하게 하여 여러 건에 중복 지원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창작을 계획함에 있어서 신중한 선택으로 내실을 다지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전 년도에 탈락한 작품의 재지원의 경우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나 구체적인 수정 작업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재도전들이 많았다. 이 경우들은 대부분 이전과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지원으로 판단되었다.

음악적으로는 작곡가의 기본적인 작곡 능력과 더불어 뮤지컬과 차별되는 오페라 특유의 풍부한 성악적, 관현악적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완성된 작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작곡가가 성악과 관현악에 있어서 균형 있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그 작품들에서 충분한 예술성이 파악되는지가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지원자들의 경우 성악곡에 대한 이해와 관련 작품 경력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눈에 띄었다.

극작에 있어서는 소재나 주제가 참신성과 독창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정서에 공감되어 장차 관객의 호응을 얻어 낼 수 있는 작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 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잘 알려진 고전이나 역사적 인물 및 사건을 소재로 함에 있어서 단편적 사건의 나열에 그쳐 아쉬웠다. 시대를 초월한 인간 삶의 본질적 요소를 담고 있는 우수한 고전일지라도 이 시대에 재창조됨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극적, 음악적 재해석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대형 오페라의 규모를 갖추는 과정에서 극적 요소들이 방대하게 펼쳐져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다. 명확한 스토리 전개와 각 요소에 대한 심층적 표현이 수반될 때, 주제의 전달력과 더불어 깊이 있는 극적 음악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부 기준과 절차에 의거하여 1차 서류 심사에서 6개의 지원 신청작(이하 가나다 순) <가짜아이>, <꽃을 바치는 시간>, <날개>, <달의 제국(가제)>, <인형의 신전>, <찬장 할머니네 집에서>를 선정하였다.

2017년도 오페라창작활동발굴 지원 2차 심의는 1차 심의를 통해 선정한 6건의 지원 신청자들의 각각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진행 방식은 먼저 각 지원자들이 발표시간을 활용하여 작품 계획을 설명하고 팀에 따라서는 기존의 작품 영상을 추가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서면 심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각 작품에 대한 의문점들을 인터뷰를 통해 추가 검증하였다. 특히 실행 역량에 대해 종합예술인 오페라를 완성해나가는 과정의 필수 요인인 협업에 대한 발전적인 개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타인의 의견 수용과 자기의 예술적 주관 간의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후 종합 토론을 거쳐 개별 채점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세 개의 작품 <꽃을 바치는 시간>, <인형의 신전>, <찬장 할머니네 집에서>가 선정되었다.

#### <가짜아이>

작곡가와 작가의 협업 경험이 있어서 실행역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극작에 있어서 소재는 흥미로웠으나 주제와 심리적 갈등의 명확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드라마가 음악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고 언어의 기본 전달력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마련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꽃을 바치는 시간>

각자의 기본적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하고 작곡가와 대본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와 작업 과정과 완성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결과물 자체만 놓고 보자면 주제와 스토리 전개에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만일 모든 인물들이 관념적으로 써졌기 때문이라면 그러한 측면 또한 작품 안에서 명확한 의도로써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음악적으로는 음의 구조적인 면보다 사운드적인 면에서 한국적으로 표현하겠다고 계획한 부분과 극작에 있어서 신라 향가 <헌화가>를 소재로 하여 현대화 한 점이 참신하다.

#### <날개>

시인 이상의 작품 자체를 노래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작품 속의 또 다른 자아와 소통함을 여러 가지 독특한 기법으로 시인의 비범한 내적 세계를 그리겠다는 의도에 참신성이 있었다. 그러나 대본의 구성력에 있어서 공감하기 어려운 비약들이 발견되어 극작가로써의 전문 경력이 아쉽다. 작곡의 경우에도 이러한 대본을 예술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계획이 파악되지 않는다. 주인공 이상의 작품들이 무대언어으로써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방법도 역시 잘 나타나 있지 않다. 개인적 친밀도 이외에 두 사람 간의 실제 창작 협업 경험이 없어서 실행 역량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 <달의 제국(가제)>

작곡가와 작가의 예술성 자체와 협업의 전망은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2016년 실연 심사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다른 팀에 비해 작업에 대한 제작 계획의 구체성을 기대했으나,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은 미비하였다. 이전 작품인 <소서노>에서의 개작 수정하는 것에 대한 작가와 작곡가의 방향성은 타당해 보인다. 단, 작곡에 대한 방향성에도 역시 조금 더 발전 방향이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인형의 신전>

다소 산만한 스토리 전개와 복잡한 인물 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극적 집약성과 주제의 전달력에 대한 심화된 작업이 요구된다. 외국 소재라는 점이 아쉽고 또 이러한 외국소재에 한국적 음악도 도입하겠다는 것이 의도는 참신하지만 우려되는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스스로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선의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작곡가의 음악적 완성도에 대한 신뢰와 작가와 작곡가가 서로 사전 협의가 잘 되어 있어서 원활한 소통과 진행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찬장 할머니네 집에서>

극작가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논리적, 예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주제가 명확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적극성은 작가의 예술적 지평을 더 넓혀 줄 것으로 보인다. 작곡가는 협업 대상에 따라 유연한 색깔을 보여 온 그간의 작품들에 비추어 새로운 스타일의 대본으로 새로운 에너지와 색깔을 찾아내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러나 산발적인 에피소드 나열에 그칠 위험이 있고, 극 중의 그로테스크함이나 블랙코미디적인 내용들이 음악에 충분히 녹아들어 오페라에 개성을 더해줄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는 부분이다. 특히 트로트나 뽕짝 같은 대중음악을 오페라 장르에 걸맞은 가치를 가질 만큼 녹여 내겠다는 작곡가의 포부는 좋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도전으로 보여 신중한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이로써 선정된 세 작품은 작품 전체를 완성하여 제출하고(관현악 파트 포함) 이 중 30분의 분량을 추출하여 쇼케이스를 통해 2018년도에 실연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때 작곡가와 작가는 제작단체와 함께 지원하게 된다. 오페라제작의 전문성과 동시에 작곡가와 작가의 예술적 주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맡아 줄 수 있는 단체와 연출가의 선정은 궁극적으로 작품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심의회원 일동